“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4차산업에 관해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촉발된 새로운 데이터의 기회를 발판으로 삼아 추진하는 대한민국 데이터 119 프로젝트 중 11대 실천 과제에 대해 서술하시오.”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DX)의 흐름 속에서 산업구조 전반의 변화가 초래됨에 따라 각국 정부는 디지털 전환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주요 기업 중심의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진행 중이다. 가속화되는 디지털 경제 확산에 맞춰, 데이터 활용을 통해 실질적 가치 창출을 위한 데이터 정책 재설계의 필요성에 따라 정부는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를 비전 삼아, “데이터 개방-유통-활용 촉진을 통한 디지털 경제 활성화”라는 목표를 설정했다. 기본 방향은 전 사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업과 시장 중심’, 국민의 참여를 촉진하는 ‘사람과 서비스 중심’, 정책을 조정하고 지원하는 ‘거버넌스 중심’의 3대 축을 중심으로 이뤄지게 된다.

특정 부처에서만 다루기엔 버거운 4차 산업혁명 관련 아젠다를 심의·조정하고 관련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진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민간 주도 자문회의로서 ‘국가 데이터 정책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부여받아, 데이터 기반 디지털 경제 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 결과로 나온 것이 “대한민국 데이터 119 프로젝트”이다. “대한민국 데이터 119 프로젝트”는 크게, 11대 실천과제와 9대 서비스로 구성되어있고 11대 실천과제는 “민간중심 생태계 혁신”의 네 가지 항목과 “종합적 데이터 정책체계 확립”이라는 다섯 가지 사항, 그리고 두 가지의 특별 현안 과제로 짜여있다.

“민간 중심 데이터 생태계 혁신”에는 사업자등록 및 휴폐업 정보, 보험정보 등 핵심 데이터를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제공하는 “미개방 핵심 데이터 제공”이 있으며, 비표준화, 제공 주기 미준수, 데이터 결함(데이터 누락 등), 기계가 읽을 수 없는 형식 등의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간 애로사항을 종합 개선하는 “수요자가 원하는 수준의 데이터 품질 확보”가 있다. 또, “민간 전문기업 활용 및 데이터 구매 지원”을 통해 데이터 가공 및 분석을 위한 민간 전문기업 활용 확대와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 제도로 민간 데이터 구매를 활성화시키며, 공공·민간 데이터 플랫폼을 통합 데이터 지도로 연계하여 데이터 검색을 원활하게 하는 “데이터 플랫폼 연계 및 거래소 활성화” 방안이 존재한다.

“종합적 데이터 정책체계 확립”에는 “국가 데이터 관리 체계 전면 개편”을 통해 국가 전체적인 데이터 현황 파악 및 활용 전략을 마련하고, 데이터 중요도 등급에 따른 분류체계 마련 및 보안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데이터 수집·관리·분석·활용 전반의 전략 및 구현 책임을 지고, 데이터에서 가치를 창출해 내는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CDO, Chief Data Office) 신설을 검토해봄 직하다. 정보를 받으면 같은 질문을 하지 않는 ‘단 한번(Once-Only) 원칙’ 기반 데이터 수집·공유 방식 구현과 정보화 사업에 데이터 사전기획 제도를 도입하고 공무원의 데이터 역량을 제고하는 등 “데이터 중심 정부업무 재설계” 역시 필요하다. “새로운 데이터 활용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데이터 이동권 확립 및 분야별 마이데이터 사업자 선정 기준 및 데이터 수집 방식을 체계화하거나, 가명정보 처리기준과 결합절차 명확화 및 법적 책임 관련 제도 보완을 검토하며 사전동의제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제3자 공동활용 등 데이터 활용성을 제고해야 한다. 여기에 비밀보장, 목적한정 등 데이터 개방 및 활용을 저해하는 개별 법상 규정 일괄 정비 또한 필수적이다. 데이터의 오남용 문제를 막기 위한 “데이터 생태계 전반의 위험 선제 대응” 과제는 대단히 중요한데, 데이터 위험관리 프레임워크 개발 등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데이터 편향 예방을 위한 설명요구권 및 이의제기권 도입을 통해 최소한의 안전망은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재난 피해집단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한 방역, 대피, 지원 등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데이터 기반 과학적 재난관리 체계 구축”은 재난관리 회복력을 강화시킬 것이다.

특별 현안과제에 포함된 “코로나19 타임캡슐 프로젝트 추진”은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사회현상에 대한 기록·저장 및 사회 전반의 영향을 분석하여 코로나19와 같은 특별상황 분석 및 향후 시뮬레이션 등을 위해 필요하다. 여러 기관에 분산된 물 관리 데이터를 통합하는 “물 관리 데이터 통합 체계 마련”은 매년 일어나는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데이터 기반의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데이터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을 이끄는 동력으로 부상하면서 세계 각국은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민간 중심의 데이터 생태계 혁신 및 데이터 중심으로 정부의 일하는 방식 전반을 전환하기 위한 내용이 담긴 11대 실천과제를 통해 민간의 오랜 요구에도 해결이 어려웠던, 범정부 차원의 통합·조율이 필요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